

민족불교 성지 선학원을 되짚다 연재를 마치며

역사는 생물(生物)이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Edward Hallett Carr, 1892~1982)는 역사를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했다. 과거의 것이라고 해서, 단절된 것이라고 해서 사멸(死滅)한 것이 역사였다면 인류는 무지(無知)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필떡거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진행형이다. 핵심은 역사가 연속성을 지니고 있고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한국 근대불교사는 지금 우리 불교계를 규정짓고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그 잔재가 지금 우리 불교계에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미래의 한국불교를 진단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지나온 근대불교사를 냉정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연초부터 선학원의 역사를 더듬었다. 1921년 설립부터 1941년 유교법회(遺敎法會)까지 그 숨결을 찾고자 했다. 내 시선이 아니고 그 시절의 시선으로 보고자 했다. 이 시기동안 선학원 역사는 한마디로 잃어버리고 빼앗긴 내 것을 찾아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것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선학원의 역사는 신재호 선생이 말한 것처럼 아(我)와 비아(非我)의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다.

1921년 흥대받고 있는 수좌(首座)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단순한 설립목적은 일본의 조선불교지배와 사찰령 시행, 주지전환제도, 대처식육(帶妻食肉)의 풍조와 같은 일제강점기 우리 불교계가 안고 있었던 굵직한 일련의 사건들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1922년 선우공제회 창립과 범인화 시도의 노력 역시 민족불교 수호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선량(禪量)의 마련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고 자발적인 것이었다. 스님들 개인의 범담(法談)과 회사금, 그리고 신도들의 보시금이 수좌스님들의 처소에 부는 비바람을 막아주었고, 약값이 되어주었다. 한동안 침체를 겪기도 했지만, 한국불교의 명맥을 격정하는 선각자들의 노심조사로 다시 일어설기도 하였다. 수좌대회를 통해 설립당시의 의지를 결집시키기도 하였고, 조직 확대와 발전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1931년부터 시작된 재건 노력은 1934년 재단법인인가와 ‘조선불교 선종’이라는 창종의 결실을 맺기도 하였다. 이렇게 되기까지 맞바람도 만만치 않았다.

1923년 법인인가 신청원을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제출했지만, 번번히 반려되기 일쑤였고, 당시 불교계의 대표기관에 청정비구가 수행할 수 있는 수행도

량을 할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여지없이 묵살되었다. 이 요구는 해방 이후까지도 지속되었다. 또한 1941년 유교법회 역시 방해공작으로 집회허가를 받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선학원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불교의 정통성과 민족불교의 수호라는 명분과 자생력이었다. 이 자생력은 유교법회에서 오히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의 설립근간을 만들기도 하였고 정화운동의 명분도 되었으니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1945년 광복 전후 해방공간 안에서의 선학원은 정화운동 이외에는 연구된 바가 없고 자료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선학원의 성장이 이렇다 보니 여전히 맞바람이 거세다. 몇 차례에 걸친 조계종과의 갈등과 대립은 현재는 ‘법인법’이라는 새로운 문제로 대치하고 있다. 싸울 수 있고 서로 으르렁 거릴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싸움에서 과거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라든가, 왜 싸워야 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찾아 볼 수 없

해방 전후 선학원 연구 부족 미래 한국불교 조명 위해선 근대불교사 냉정히 살펴야

다. 썰렁하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적어도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여질만한 명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나이는 1700년이지만 여전히 어린이 수준이다. 우박질러서 입에 든 사람을 뺏을 태세다. 속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쥐뿔지 한다. 주고 싶어도 못줄 분명한 역사와 명분이 있다. 아는가. 잊혀진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는 것을...

다른 이야기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우리가 근대불교를 바라보는 태도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한 근대불교에 대해 ‘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와 같은 흑백논리에 아직 취해 있다. 이른바 ‘항일’과 ‘친일’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다. 주어진 역사와 만들어진 역사였는가를 생각할 겨를도 없다. 우선 ‘항일’과 ‘민족불교’는 해석할 필요조차 없다. 주어진 역사 속에서 이 두 화두는 이념이 끼어들 공간은 없다. 해석의 여지도 없다. 침략과 약탈에 대해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자 했던 본능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그 시절의 불교를 무지(無知) 혹은 친일(親日)일변도로 보는 성향이다. 불교학계의 일각에서도

친일·애국 이분법적 근대사 극복 ‘과제’



현재 선학원 전경. 근대불교가 가진 질곡의 역사를 친일과 애국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안된다.

항일과 친일이라는 이분법적 규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예컨대 스님들의 도성출입금지 조치가 풀리지 “불일(佛日)이 다시 빛날 수 있게 되었구나.”라든가 해금(解禁)의 공을 세운 일 본인에게 감사장을 준 사실에 대해 ‘불행한 역사의 시작’이라고도 한다. 또한 한운이나 권상로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불교계 혁명을 두고 민족불교와는 그 입장차가 분명하다고 들 한다. 정법(正法)과는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늘 우리가 서있는 자리에서 어설픈 게임을 놀릴 사안은 아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왜 스님들이 도성출입을 그토록 반겼는가하는 문제다. 도성을 드나들 수 있는 것은 누명이고 그로 인한 억압이라는 족쇄가 풀린 것을 의미한다. 그 시절 절 안마당에 무엇이 있었는가. 지위는 천민의 나라로 떨어졌고, 노동력이 부족하면 언제든 가져다 쓸 수 있는 잉여 자본에 불과하

지 않았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길 시간이 어디 있었는가. 부처의 골수를 훔치기 위해 선방에 조용히 앉아 본성을 바라볼 여가가 우리에게서 없지 않았는가. 본분(本分)임에도 불구하고 사치스러운 여가(餘暇) 말이다. 조선시대의 불교가 이전시대와는 판이하게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일이 아닌가.

아울러 그 시절 스님들과 몇몇 불교계의 지식들이 고심하고 있었던 것은 불법(佛法)을 이 땅에 다시 세우는 일이고, 한국불교의 명맥을 다시 이어 나가는 것이었다. 내 주머니에 장사발천이라고는 없었고, 연명하자면 남에게 빚이라도 져야 할 것 아닌가. 혹자는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 그 시절을 바라보는 지금 학자들의 시각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시절의 사실은 철저한 삶의 문제다. 종이위의 글로써 판단할 일도, 세치 혀로 시비(是非)를 논하기 이전의 문제다. 냉정이 아닌 냉혹

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지금도 남아있는 그 시절의 문제는 어떻게 하나고 묻는다. 그것은 우리들 몫이다. 그들은 적어도 터전을 만들어주지 않았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만 생각하면 된다.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부처님의 눈으로 보고 싶다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일불제자(一佛弟子)라고 떠들고 다니지 않는가. 이 말이 강의나 세미나와 같은 고상한 자리에서만 쓸 수 있는 고귀한 단어는 아니지 않은가.

두서없이 마감의 글을 썼다. 지면을 내준 현대불교신문사와 선학원에 미안하면서도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

필자의 사정에 의해 해방 전까지 연재합니다. 그간 성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경후(한국불교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나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指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삼 서술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 ☑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이자를 물고 계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33년 역사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으로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3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010-7314-2522

대출기간 기본5년(연기가능) / 근저당설정비 면제
제주도 포함 전국, 단체명의, 중단사찰 모두 가능!

본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로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 ~ 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 모집중